만능 스마트폰…폐해도 만가지

스마트폰 폐해 보니

- #1 밤늦도록 게임 아이템 받기 가족과 단절 등 사회적문제
- #2 가상의 공간 언어폭력 심각 카카오톡 왕따 등 폭력 도구
- #3 채팅 여학생 위협 성폭행 스미싱·파밍 등 금융피해도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역기능 최소화 힘써야"

손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만능' 스마트폰의 폐해가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둘러싼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은 물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으로 '왕따'와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심지어 폭력과 범죄의 새로운 '도구' 로 이용되고, 스마트폰 사용을 끊지 못하는데 따른 금단 증상, 사람과 사람, 가족관계의 단절까지도 만들어 내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 속 태우는 '애물'= 조모(43·동구 학동)씨는 밤마다 스마트폰을 놓고 아들(15)과 '전쟁'을 벌인다. 밤 12시면 게임 아이템을 받아야 한다며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는 아들 때문이다.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아들을 어르고 달래도 소용없다.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는 일도 다반사다.

갈수록 떨어지는 성적에 학교 생활을 잘하는지도 걱정이다. 게임뿐 아니라 시간이 날 때면 스마트폰을 갖고 웹툰이나 동영상 시청,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같은 SNS까지 하는 통에 '친구나 사귈 수 있을지' 고민도 한다.

이렇게 되니 "움직이면서 동영상 강의를 볼 수도 있고, 요즘은 학교 숙제도 SNS로 줘서 꼭 필요하다"는 아들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쥐여준 일을 후회할 정도다.

조씨는 "이미 스마트폰이 '사회적 도구'가 된 탓에 이를 막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점점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해지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새로운 폭력의 '도구'=스마트폰은 폭력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카카오 톡'이나 '페이스북'처럼 얼굴을 보지 않고 가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스마트폰을 이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카카오스토리'와 같은 SNS에서 아이디를 삭제하고 대화에 끼워주지 않는 '카카오톡(카톡) 왕따'가 있고, 학생 한 명을 초대한 뒤 단체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떼카(떼로 카카오톡을 보내는 일)', 단체 채팅방으로 계속해서 초대해 괴롭히는 '카톡 감옥'도 신종 따돌림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잘못된 축약어를 사용하면서 생긴 언어 습관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등하굣길이나 버스에서 "개XX" "존XX"와 같은 축약어를 습관처럼 사용하는 학생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 이모(31)씨는 "스마트폰이 없다는 것만으로 소외당한다고 느끼는 학생도 많다"며 "SNS에는 활발했던 학생이 실제 대화에서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경우가 있다"면서 스마트폰 때문에 사회성에 일부 문제를 보이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강제로 다른 학생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와이파이 셔틀'이나 스마트폰을 넘겨 게임 캐릭터를 키우게 하거나 아이템을 강제로 선물 받는 일도 이른바 학교에서 '잘 나가는' 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진행된다.

◇온갖 범죄의 '창구'=익명성이 보장되는 데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지난달 13일 스마트폰 '즐톡'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서모(17)군은 광주 한 고교 3학년 학생이다.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카카오 톡을 보내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박모(15·광주 모 고교 1년)군이 광산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사건의 충격으로 여학생(15)은 학교도 다니지 못할 만큼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다.

뿐만 아니다. 문자로 해킹 사이트 링크를 보내고 접속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금융피해를 입히는 '스미싱'과 '파밍'과 같은 금융범죄도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확산하고 있다.

잠시라도 손에 쥐지 않으면 초조해지는 스마트폰 금단현상,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서로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중독과 소통 단절도 스마트폰의 대표적 역기능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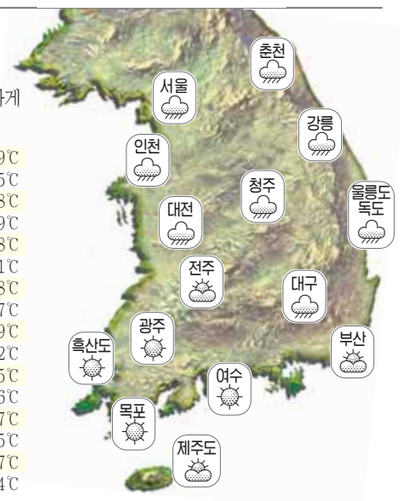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17분 해짐 18시 55분 | 달뜸 08시 26분 달짐 22시 34분

미세먼지 '보통'

맑다가 오후부터 바람 강하게 부는 곳 있겠다.

광 주	맑음	9/19℃
목 포	맑음	8/15℃
여 수	맑음	12/18℃
나 주	맑음	6/19℃
완 도	맑음	9/18℃
구 례	맑음	6/21℃
강 진	맑음	6/18℃
해 남	맑음	6/17℃
장 흥	맑음	6/19℃
순 천	맑음	10/22℃
영 광	맑음	6/15℃
진 도	맑음	7/16℃
전 주	구름많음	9/17℃
군 산	구름많음	7/15℃
남 원	구름많음	7/17℃
흑산도	맑음	9/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식중독지수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5~3.0m

	밀물	썰물
목포	04:32 16:35	09:36 21:45
여수	11:15 23:42	05:03 17:1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날 씨						
최저/최고	4/12	4/17	7/19	9/18	9/19	9/18

'빛고을 독서마라톤 대회' 내일 개막

광주시교육청, 초중고생 등 참여 7개월 대장정 돌입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한 '빛고을 독서마라톤 대회'가 4일 개막, 7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올해로 9년째인 독서마라톤대회는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창의력·논리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독서운동으로 책 읽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회 기간은 4월4일부터 11월11일까지이며, 완주 심사는 11월12일부터 12월11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광주지역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부모, 일반 시민 등이다. 참가 방법은 희망자가 빛고을독서마라톤대회홈페이지(book-marathon.ge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참가 종목을 신청한 뒤, 대회 기간에 독서한 내용을 홈페이지 독서마라톤일지에 기록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서 동일범 추정 편의점 강도사건 또 발생

광주에서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편의점 강도사건이 또다시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이후 6일 만이다.

2일 새벽 5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 후문 A편의점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침입, 종업원(22)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2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범인이 175㎝의 키에 모자가 달린 회색 옷과 검정색 마스크를 썼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새벽 5시30분께엔 광주시 동구 서석동 B편의점에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침입, 여종업원(23)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50만원을 빼앗아갔다.

경찰은 범인의 인상착의와 범행수법 등이 비슷한 점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일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 아파트 302동·303동 뒷편 주차장 80m의 지반이 침하돼 주민 1명이 다치고 차량 1대가 피해를 당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멀쩡하던 아파트 주차장 '폭삭'

목포 신안비치 지반 붕괴…주민 700명 긴급 대피

경찰, 인근 공사장 연관성 조사

목포 신안비치 아파트 주차장의 지반이 주저앉으면서 입주민 1명이 부상을 입고 700명이 긴급대피했다.

2일 오후 1시40분 목포시 북항동 신안비치 아파트 302동·303동 뒷편 주차장에서 가로 7m·세로 60~70m 가량의 지반 침하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입주민 서모(여·76)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모(45)씨의 레조 승용차가 50㎝~1m 아래로 추락했다.

또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면서 302동·303동 입주민 225세대·700명이 긴급대피했다.

현재 시와 경찰 등은 이 아파트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한 뒤 일반인들의 출입과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침하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1m 떨어진 곳에 S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점으로 미뤄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S건설은 지난해부터 아파트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302동·303동 입주민들은 S건설의 터파기 공사로 인해 도로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와 S건설 측에 수 차례를 민원을 제기해왔다.

시는 한국구조물안전원에 안전진단을 의뢰, 302동·303동에 대한 진단을 한 뒤 붕괴 위험이 있을 땐 인근에 긴급대피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